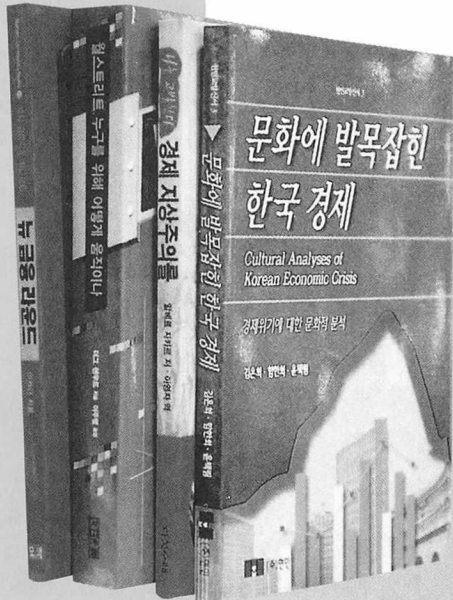


‘지피지기’에서 자기반성까지 경제흐름 읽기

일반 독자의 관심 끌 풀어쓴 책 필요

경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증가하면서 경제지상주의의 폐해, 세계 경제흐름 분석, 자기반성적 성찰을 담은 책이 쏟아졌다.



IMF 직후 나온 거시적 경제분석서들이 비해 최근엔 좀더 개인의 삶과 밀접한 경제흐름을 담은 책들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경제드라이브 정책의 물결에 휩쓸려 숨차게 달려왔다.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꿈과 ‘선진’ 혹은 ‘세계화’란 화두에 묻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왔다. 그런 가운데 IMF 한파를 맞았지만 경제주의 공룡은 생생하게 살아남았다. IMF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구조조정의 칼날이 번뜩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주의는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기 위한 사회과학인가.

경제지상주의의 직설적 비판

IMF 사태 이후 이같은 사회적 담론이 부각되면서 독서시장의 한 주류를 이뤘다. 지난 97년 말에 출간된 《세계화의 덫》(한스 피터 마르킨, 강수돌, 영림카드널)과 지난해 선보인 《어두운 승리》(월든 벨로, 이윤경, 삼인) 등은 세계의 경제질서에서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나라 즉, 우리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의 위상을 들춰낸다. 국가의 힘은 곧 경제력에 있기 때문에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는 국제적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세계 질서가 재편됐으며 경제 지상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우리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정운찬, 나무와숲)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결국 IMF 사태를 빚는 원초적 원인이 됐음을 상기시킨다.

삶에 가까이 있는 경제서 필요

최근에도 경제논리에 대한 사회비판적 시각을 담은 책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경제를 바로 알자는 지피지기형과 자기반성적 성찰을 담은 것이 주종을 이룬다.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더그 헨우드, 이주면, 사계절)는 IMF 사태의 주요 원인이 달러와 연관된 만큼 미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월스트리트를 집중 해부한다.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 모두 자기와 닮은 꼴로 만들고 있는 월스트리트를 통해 우리의 앞날을 조명한다. 《뉴 금융 라운드》(이찬근, 모색) 역시 세계 금융자본

의 흐름을 분석, 한국 경제의 앞날을 예측한다.

한편, 자기반성적 성찰을 담은 책도 많다. “경제주의의 원리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주장한 《나는 고발한다, 경제 지상주의를》(알베르 자카르, 이영자, 다섯수레)은 인류가 맹신하는 경제주의의 결과는 곧 종의 종말뿐이라고 경고한다. 경제 제일주의 아래 벌어진 고용·주택·농업·환경·국제기구·전쟁 등의 폐해를 파헤치며 상업성에 유린된 인류의 위기를 진단한다. 《문화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김은희 외, 현민시스템)는 전래문화에 대한 집착이 우리 경제를 망친 주요 원인이라고 역설한다. 전통의식과 유교문화로 인한 경제적 붕괴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 사회적 갈등의 치유책을 제시한다.

일반독자에게 아직 먼 얘기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경제 관련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서흐름은 완만하다. 자기반성적 경향의 책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일반 독자에게 아직 먼 이야기다. 사계절 강운재 팀장은 “IMF 사태가 터진 직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서를 찾았다. 지금 그런 책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냄비 현상이 독서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보문고 최순애 주임은 “개인의 삶과 밀접한 경제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 오원진 기자